

일주문

정각원 불교영상 토요법회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은 불교명상지도자협회와 함께 3월 7일부터 '불교명상지도자와 함께하는 토요법회'를 개최한다.

설맞이 서초구청 쌀 전달
서울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은 2월 13일 4층 법당에서 설을 맞이 자비의 쌀 20kg 120포를 서초구청에 전달했다.

'봉은판전' 2기 기자단 모집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3월 20일까지 봉은사 사보 '봉은판전' 2기 기자를 모집한다. (02)3218-4832

지역사회 이웃돕기
수원 용유사 주지 성원 스님은 2월 16일 화성 화산동주민센터를 찾아 이웃돕기 후원물품으로 쌀 2000kg, 라면 100박스, 현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다문화센터 사무실 이전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 무원 스님은 2월 27일 사무실을 서울시 중구 중림로 더플레시스 B108호로 이전시켰다.

불교 그리스도교 콜로키움 참석
동국대 교수 진원 스님은 2월 12일부터 2일간 인도 보드가야에서 열린 '제5차 불교-그리스도교 콜로키움'에 참석했다.

길상화 장학생 모집
맑고향기롭게 이사장 덕운 스님은 3월 20일까지 제22회 길상화 장학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전국 고교생으로 1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02)741-4698

부산경실련 신임 공동대표
부산 해원정사 주지 원해 스님은 2월 11일 부산 YWCA에서 열린 24차 정기회원 총회에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산청 보림선원 춘계 철야정진
전근홍 산청 보림선원 선원장은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백봉기추거사 법문 녹취집을 교재로 수행하는 춘계 철야정진법회를 실시한다. (055)972-9555

코바코 감사에 강태진 前 BTN국장
강태진 前 불교TV 보도국장은 2월 1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상임 감사로 임명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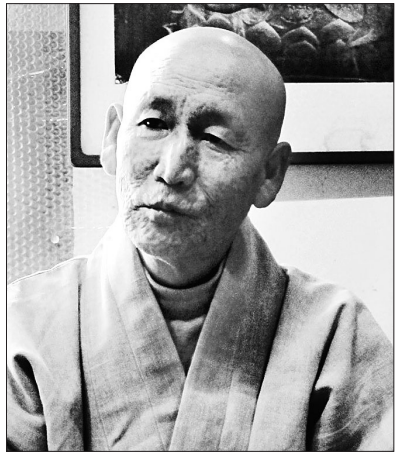
“교포 1세대 실 수 있는 수행공간 필요”

노인복지원 건립하는 호주 정법사 회주 기후 스님

통도사 해외포교당 호주 시드니 정법사가 노인복지원 건립 기금마련을 위한 전시회에 나섰다. 호주 전시 이후 한국을 찾은 정법사 회주 기후 스님이 2월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인복지원 건립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3월 부산과 서울에서 각각 열리는 전시회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60이 넘는 교민 1세대들이 너무 외로워합니다. 자식들은 출가시켜 떠나보내고, 해외에서 모국말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으니 한국 사찰에 와서 머물며 위로받고 싶어해요. 하지만 호주에 한국사찰이 많지 않아를 뿐더러 편히 쉬만한 공간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호주에도 요양시설이 많지만 한국 음식을 제공하고 한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곳은 없으니까요. 노인들이 문화강좌 듣고 한국음식으로 식사도 하면서 담소를 나누며 마음 편히 머무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노인복지원 건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인파라미타 불교복지원(가칭)”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될 노인복지원은 330명 규모의 대지에 방 3칸 휴게소 3칸을 갖추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남녀불자들이 2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이다. 식사 제



노인 위한 주간 보호 시설로 문화강좌·한식 제공 등 수안 스님 전시로 기금마련 호주 이어 부산 대구 순회

공은 물론 요가 참선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5월 부처님오신날 전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스님은 선사화전, 정법사 내 찾집 운영 등을 통해 복지원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수안 스님의 선사화전’은 지난 2월 호주 시드니 체우스콘코스 미술전시관에서 열려 큰 주목을 받았다. ‘세계적인 선화가,

수안 스님 작품 초대전’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전시는 한국의 선(禪)정신을 알리는 데도 기여했다.

“통도사 수좌로 공부할 때 인연이 된 수안 스님께서는 이번 전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호주 전시를 잘 마칠 수 있었어요. 교포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반응이 컸어요. 또한 직접 선사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했는데 관람객들이 자신의 마음상태를 알 수 있어 좋으며 상당한 관심을 보였어요. 당일 전시 시간이 끝났는데도 관람객들이 계속 몰려 오곤 시간을 연장해야 할 정도였죠.”

앞으로 전시는 부산과 서울에서도 계속된다. 3월 9일~15일 부산 소민아트센터, 3월 21일~29일 서울 나무갤러리에서 수안 스님의 선사화전을 만날 수 있다.

한편, 기후 스님은 1965년 범어사로 출가,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통도사 해인사에서 강사를 지냈다. 이후 봉암사 통도사 등 제방 선원에서 안거했으며 기림사 북암에서 6년간 묵언정진했다. 1991년에는 호주 시드니 정법사를 창건해 25년간 해외포교에 매진해왔다. 또한 2009년, 불문에 몸 담으며 들은 이야기들과 기억의 편린들을 한데 묶은 구도소설(꿈속의 인연들)(맑은소리맑은나라)을 펴내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25년 방송 포교 매진 감동 전해”

BBS, 본지 최정희 이사에 감사패 증정



방송포교에 매진해온 본지 최정희 이사(사전 가운데)가 BBS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BBS 불교방송(사장 이재원)은 지난 25년간 불교방송 라디오를 통해 방송포교에 애쓴 공로에 대해 현대불교신문 최정희 편집이사에게 2월 25일 감사패를 증정했다.

최정희 현대불교신문 편집이사는 1990년 BBS 불교방송 개국 당시 ‘자비의 전화’ 프로그램 진행을 시작으로 ‘피안을 향하여’ ‘지금은 불교시대’를 거쳐 현재의 프로그램 ‘BBS초대석’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불교적 소양과 지식을 바탕으로 25년간 불교방송의 여러 대담 프로그램을 원만하게 진행하여 방송 포교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에 불교방송은 최정희 이사의 공로를 기려 프로그램을 회향하면서 감사패를 증정했다.

최정희 이사는 “방송 포교에 동참할 수 있어 뿌듯했다. 불교방송 설립은 모든 불자들의 염원이 모여 이루어진 만큼 올해로 개국 25주년을 맞는 불교방송에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울산 신불사, 제 11회 장학금 수여식

초중고생 31명에 총 3720만원 전달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울산 신불사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는 2월 22일 신불사에서 저소득 가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 11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초중고생 31명에게 총 372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신불사는 자비회를 주축으로 화원들이 모은 성금을 매년 지역 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한 학생들을 선발, 1년동안 매월 10만원씩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장학사업을 주도적으로 펼치는 신불사 자비회는 2004년 4명으로 발족했으며, 10년이 지난 현재 3백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신불사 주지 혜성 스님은 “만일 동안 좋은일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자비회가 발족했으며 현재 총 2억 여원이 장학금으로 지원된 상태”라며 “앞으로 후원 학생이 108명이 되는 날까지 미래의 동량인 새싹불자들에게 자비회원들과 합심해 인재불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052)264-8250

울산 신불사=김주원 기자 kimj4217@hyunbul.com

동국대 입학식 빛낸 100세老스님



2월 27일 열린 2015학년도 동국대 경주캠퍼스 입학식에는 특별한 손님이 초대됐다. 그 주인공은 몸소 무소유를 실천한 100세의 한老스님이었다.

통영 신광사 주지 선도스님은 2002년 전 재산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선도장학회를 설립해 2003년부터 동국대 경주캠퍼스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1916년에 태어난 스님은 평소 “여자는 글 배우면 안 된다고 해서 배우지 못한 것과 일제 강점기에 나라 없던 서러움이 평생 한으로 남았다.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배워서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알고 있는 학교 측이 스님의 못 다 이룬 학업에 대한 꿈을 이뤄드리고자 100세를 맞는 스님에게 명예학생증을 수여하는 특별행사를 준비한 것이다. 이날 이 총장이 신입생들에게 스님의 사연과 함께 100세를 맞는 스님의 연세를 소개하자, 체육관은 신입생과 학부모들의 커다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명예학생증을 받은 스님은 학생들을 향해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꼭 나라 위해 일하세요”라고 외쳤다. 스님의 힘찬 당부에 스무살의 학생들은 다시한번 뜨거운 환호로 답했다. 한편, 동국대는 26일 장충체육관에서 2015학년도 입학식 및 신입생 환영식을 개최하고 총 3,099명의 신입생을 받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응공사 자혜불교대학 정초기도

대구 달서구 대응공사 자혜불교대학(학장 도경)은 2월 25일 정초삼림기도 입제 및 영공 스님 초청법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만공 스님, 광진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했다.

초청법사로 나선 부산 해동사 조실 영공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삼귀의’ ‘오계’가 가장 올바른 삶의 길임을 믿고 실천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금강대, 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2월 28일 교내 대강당에서 ‘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금강대는 올해 학부생 144명, 대학원 석사과정 4명, 박사과정 3명, 금강어학원 33명 등 총 184명이 입학했다. 입학식에는 신입생과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68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전생요법: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단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여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왔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격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